

중국 요령성 등탑시 백암성 출토 고구려 석비편 소개(補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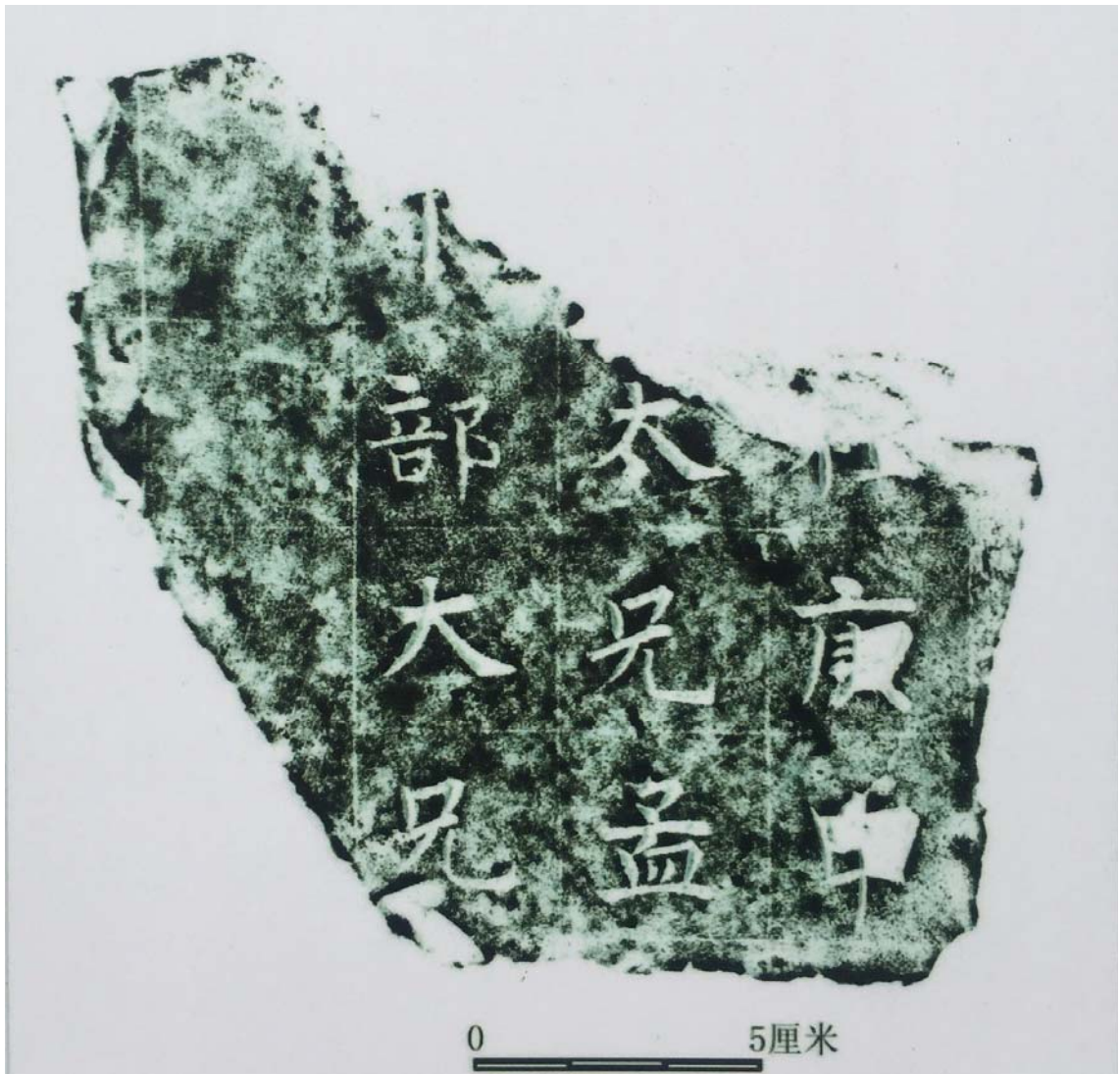
박대재(고려대)

중국 遼寧省 灯塔市 太子河 유역에 위치한 白巖城 내에서 고구려 석비 조각 1편이 2009년 출토된 것이 최근 확인되었다.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가 2009년 7월~12월 백암성 서남쪽 성벽, 치, 門址 등을 조사하던 중 토층에서 비편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중국고고학연감』(2010년)에 간략하게 보고된 바 있었으나, 그동안 국내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발굴현장에 세워진 안내판과 2011년 발간된 연감의 보고문을 토대로 비편의 내용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비편은 9×16cm 정도의 부정형 파편으로 비면에 3~4cm 간격으로 界線이 그려져 있고, “(在)庚申…大兄孟…(下)部大兄” 등의 해서체 명문이 세로로 음각되어 있다.



「사진 1」 백암성 고구려비편



「사진 2」 백암성 고구려 비편 탁본

大兄은 고구려 관등 명칭으로 『魏書』에 처음 보이는데, 『周書』에서는 太對盧·太
大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관등으로, 『翰苑』에 인용된 『高麗記』에서는 일곱 번째
로 높은 관등으로 나온다. 『고려기』에서는 대형이 당의 정5품에 비견된다고 하였다.

部 앞에 있는 글자는 윗부분이 깨져 명확하지 않지만, 자형과 문맥으로 보아 ‘下’
자일 가능성이 높다.¹⁾ 下部는 고구려의 5部 가운데 하나인 西部의 다른 명칭으로, 「
충주고구려비」에서도 ‘下部大兄’ 즉 하부의 대형 관등을 가진 인물이 古牟婁城의 守
事(장관)로 보인다.

1) 『燈塔市歷史與文化-歷史考古文物卷-』에서는 “...(歲)在庚申...太兄孟...中部大兄...”으로 추독.(동북
아역사재단 이성제 소장 자료 제공)

대형 다음의 ‘孟’자는 인명으로 추정된다. 장수왕 24년(436)에 後燕을 공격한 고구려 장수의 이름으로 孟光이 보이는데, 고구려 인명에서 ‘맹’자가 사용된 예로 참고된다. 大兄, 下部 등 고구려 특유의 명칭으로 보아, 이 비편이 고구려의 유물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庚申은 연도를 나타내는 干支로 보이는데, 『삼국사기』에서 양원왕 3년(547)에 백암성을 개축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의 간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보면 600년과 660년이 경신년으로, 일단 두 가지의 가능성에 무게가 두어진다.

서남쪽 문지 내 건물지에서는 아직까지도 수습되지 않은 다량의 고구려 기와편이 남아있어 많은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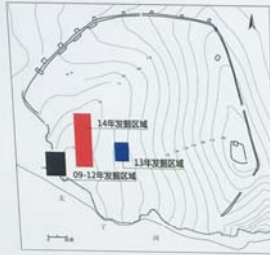


「사진 3」 백암성 서남문지 출토 고구려기와

석비편과 함께 연화문 와당, 기와 등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었고, 요·금시기의 도자기, 철제 무기 등도 다수 출토되었다. 서남쪽 문지 양쪽 성벽은 고구려시기에 축조된 것이며, 가운데 문지는 고구려시기에 축조한 성벽에 요·금시기에 보충한 것이다.

辽阳名城文物保护单位保护工作
成果展示

三、燕州城山城考古工作开展情况



燕州城山城考古发掘位置图



辽宁省灯塔市燕州城遗址考古发掘证照



考古发掘现场

考古发掘现场



考古发掘现场全景

考古发掘现场局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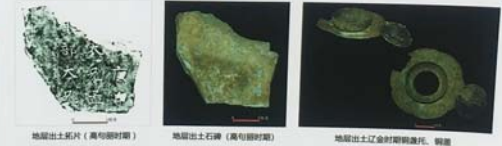
1号门址出土铁器片

1号门址出土铁门轴榫

1号门址出土马嚼



遗址出土带莲花纹瓦当的铜钱 (高句丽时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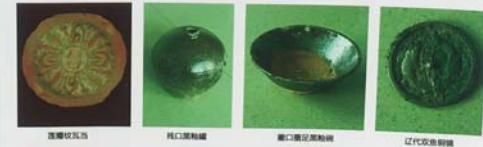
地层出土瓦片 (高句丽时期)

地层出土石牌 (高句丽时期)

地层出土辽金时期铜钱、铜镜



铁器生产工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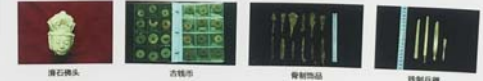


瓦当纹瓦当

瓦口磨制镜

瓦口磨制铜镜

辽代纹饰铜镜



白石佛头

古钱币

骨制物品

铁制兵器

「사진 4」 백암성 서남문지 발굴 안내판

서남쪽 문지 주변의 치와 배수구에 대한 발굴조사는 2010년에도 진행되었는데, 당 숙종 건원 연간(756~762)에 발행된 「乾元重寶」 동전 1매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2011년 문지 주변 발굴조사에서는 석각 1편이 출토되었다. 24(너비)×23(높이)×6cm (두께) 크기의 석각편에 계선이 있고 해서체의 문자가 새겨져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2009년 출토 고구려 석비편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2012년 발간된 보고문에서는 석각편의 외형만 소개하고 있어 명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2012년에는 토광묘로 추정되는 무덤 4기가 암반층에서 발굴되었는데, 銅泡, 貝幣, 管狀石珠, 五銖錢 등 출토유물로 보아 서한 말기~동한 초기의 유적으로 추정된다. 이상 출토 유물들은 현재 요령성박물관에서 정리 중이라고 한다.

2013년에는 고구려 시기의 건물지 2기가 발굴되었는데, 그 중 한 건물지에서 온돌 시설이 확인되었다고 하며, 2016년에는 관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대형 건물지를 발굴하였다고 한다.

그간 국내에서 백암성 출토 고구려비편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조속히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중국고고학연감』(2010년)에 실린 보고문에 간단히 소개되었지만, 비편의 정확한 출토지점이나 동반 출토 유물에 대한 정보가 없다. 또한 2011년 출토 석각편에도 계선이 있고 해서체 명문이라는 특징에서 2009년 출토 고구려비편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중국고고학연감』(2011년)에서는 간단하게 그 형태만 소개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고대사학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조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蘇鵬力, 2011.9, 「燈塔市燕州城城址」 『中國考古學年鑒』(2010), 文物出版社.
- 馮永謙·李濤·趙中文, 2011.11, 『燈塔市歷史與文化-歷史考古文物卷-』, 遼寧人民出版社.
- 蘇鵬力, 2012.11, 「燈塔市高句麗燕州城山城」 『中國考古學年鑒』(2011), 文物出版社.
- 蘇鵬力·司偉偉, 2013.10, 「燈塔市燕州城城址」 『中國考古學年鑒』(2012), 文物出版社.
- 蘇鵬力, 2014.12, 「燈塔市燕州城城址」 『中國考古學年鑒』(2013), 文物出版社.
- 蘇鵬力·于懷石·任秀芬, 2015.12, 「燈塔市燕州城山城」 『中國考古學年鑒』(2014),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于懷石, 2018.11, 「燈塔市燕州城山城」 『中國考古學年鑒』(2017), 中國社會科學出版社.